

질병·노후 걱정없는 '수행의 길'

해인사, 사중 출신 사미(니) 종합보험 가입키로... 60세 이상 스님은 실버보험

법보종찰 해인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승려 노후복지 개선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인사주지 현승은 사중으로 출가하는 모든 스님들에게 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해인사행자교육원을 거쳐 사미(니)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

평생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0세 이상 중년급 스님들에게도 오는 1월 1일부터 실버보험에 가입해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해인사가 인재양성 및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재원은 각 말사가 부담하는 교구분담금

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해인사로 출가해 봄 가을 행자교육원을 거쳐 사미(니)계를 받은 예비 스님들은 년 평균 50여명. 지난해 해인사에 행자교육원이 만들어지면서 출가자가 한 해 35명으로 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해인사의 전언이다. 매년 말사가 부담하는 교구분담금이 1억5천만원 가량이며 이를 승려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관람료 위원회와 대책위는 12월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제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관람료 대표소 '그대로'

조계종 관람료위·대책위 연석회의서 결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 위원회·대책위원회 연석회의(위원장 범)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현실화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

화재관람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07년 6월까지 현재의 대표소를 존치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단독 징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며 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관람료 사람이 함께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단독 징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와 탐방객에 대한 안내관 등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동국대 총장에 오영교 前 행정부 장관

교수대우·기반시설개선 등 108 프로젝트 제시 예정

동국대 제16대 총장에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12일 학교 본관에서 제224차 이사회를 열고 오영교 前 장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오영교 총장선출자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4년간이다.



선출 확정 후 열린 인터뷰에서 오 총장선출자는 "행자부 장관, 코트라 사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대학의 새로운 전경을 세우고, 동국대를 세계적인 불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대학이 되려면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하고,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진이 있어야 한다"며 교수 대우 및 기반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오 총장선출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108 프로젝트'를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장 출마 배경에 대해 오 총장선출자는 "동국대에 관계된 인사들의 권유가 있었다"며 "세

남두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타회는 성명서를 통해 "불교 언론은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발전과 감시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여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며 "교계 언론사 폐간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도 14일 "현대불교신문이 12년 동안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인 만큼, 폐간으로 인해 자원이 문헌되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므로 폐간 결정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교기자협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기에 폐간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다른 운영주체가 신문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폐간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광주전남 포교사단 등 13개 광주 전남지역 단체들도 15일 현대불교신문의 원만한 해결

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13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인 '현대불교'가 폐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자구책을 강구할 기회도 없이 무조건 폐간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신문사 직원들은 임금삭감, 퇴직금 반납 등으로 신문사를 유지하겠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성만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불교발전의 이로운 다른 운영주체가 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스님)도 15일 성명서에서 "그간 불교계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 온 '현대불교'의 폐간 결정 소식이 안타까운 마음 글밭 길 없다"며 "사회의 공이라는 유력한 언론매체의 폐간이 너무 급격하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범불교 규탄대회 갖기로 20일 성북불교사암련

성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스님)는 12월 10일 성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성북구 교동협의회' 관련 제4차 대책회의를 갖고 12월 20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종교편향 범불교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일간지 지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편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회부장 지원 스님과의 면담만 가졌다.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구성장 공식사과의 진행과정 공개, 대책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8일 공문을 통해 그간 불의를 빚었던 교동협의회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정진석 추기경 21일 승가원 방문

지난 4월 지관 스님 성가정임양원 방문의 '답방'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소재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한다.

정진석 추기경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인 '성가정임양원'을 방문한 것의 답방형식으로 추진된다.

정진석 추기경은 승가원을 방문

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현황 보고를 듣고 지원금을 전달하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환담을 나누는 뒤 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정 추기경의 불교시설 방문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원장 스님도 이미 가톨릭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화의 관심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보광사 '창건주지위 확인' 서물지법서 기각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1월 14일 자료 서울 보광사, 청주 충북불교회관, 부산 보광사에 대한 현종·황운 스님 측의 '창건주지위 확인'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일 스님의 창건주 지위의 위임 또는 승계의 의사 표시는 실질적인 행위를 갖추지 못한 부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의 창건주 지위의 확인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단법인 선학원은 12월 13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의 지혜가 모이면 태산은 옮긴다"는 격언처럼 공의를 모으고 갈등을 중재한다면 원용산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이 결하여 수용되어 더 이상 '보상과 창건주 문제'로 불교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정일 선사의 정신이 이어져 현종 스님 측이 남산문도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지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선 80명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명칭 3.50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조기유학생모집

초·중·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전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규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서연호(한국항공대)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민아(광주여고)	▲김재문(경남대)	▲김민성(취문고)
▲김준호(배문고)	▲최종건(UCLA)	▲한홍정(단국대)
▲이경환(배재대)	▲이거성(연세대)	▲박병수(영지대)
▲이종환(우석대)	▲강민정(경희대학원)	▲강성우(홍남대)
▲박영문(명지대)	▲박병수(연세대)	▲김정우(연희고)
▲강성우(홍남대)	▲이정화(건국대)	▲강민정(경희대)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